

# 완도군, 해양헬스케어 치유 자원화 해조류 활용 '시동'

### 전남대 박용주 교수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임상시험 진행



완도군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해양헬스케어 치유 자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조류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시험을 전남대학교 박용주 교수팀이 주관하여 신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명사실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칼슘 섭취가 부족한 젊은 여성들이 해조류(미역)를 섭취했을 때, 골대사 지표인 부갑상선 호르몬(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의 변화와 장내 미생물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조류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칼슘과 수용성 식유 함유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미역으로 다양한 해조류 식단을 구성해 시험에 참가하는 대상에게 섭취토록 하였다. 또한 임상시험 기간 중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노르딕 워킹, 요가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였고, 완도수목원, 여촌민속전시관, 장보고 유적지 등 문화유적지 답사를 함께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김모(23세)씨는 "1주일 동안 매일 3번 씩 해조류를 섭취하는 프로그램이 질리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해조류로 구성된 식단이 맛있었고 해조류의 본

고장인 완도에 와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것이 좋은 추억과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

완도는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의 전국 생산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조류의 천국 완도라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완도의 바다 지질환경이 맥반석으로 형성된 것이 밝혀져 완도 수산물에 대한 가치를 더했다.

해양헬스케어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개념 미래 해양산업으로 의료, 관광 바이오 산업이 융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임상시험 또한 정부의 해양치유지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민선 7기 군정의 최상위 목표로 추진하여,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성과를 올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여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장흥 농산물 팜파티 '성황'

### 인천·구리시 도시 소비자 100명 초청



장흥군은 6월 28일 인천, 구리시 도시 소비자 100명을 초청하여 장흥 농산물을 활용한 팜파티를 블루팜 블루베리 농장에서 개최하였다.

팜파티(Farm-Party)는 건강한 식문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패턴에 따라 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파티 문화를 접목하는 새로운 농산물 판매 마케팅 방식으로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장현장 체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e-농업인연

구회(대표 이병모)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장흥 e-농업인연구회는 18호 26명이 인터넷 및 사이버 농산물 마케팅을 공부하며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이번 팜파티는 도시 소비자(인천, 구리시)에게 회원들이 생산한 장흥의 우수한 농산물 판매, 지역농산물로 차려진 농부밥상, 음악공연, 블루베리 수확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장에서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를 통해서 장흥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삼섭 장흥부군수는 "행성산업 농업을 이끌어가는 생산자와 건강한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팜파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무안국제공항, 한마음 음악회 개최

### 지역사회·유관기관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무안군은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지사장 정상국)에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관기관 직원들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영암생활음악회의 기타와 노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출장소장의 색소폰 연주, 소프라노?테너의 전통 클래식, 크로스오버 밴드 공연

등 관객과 소통하는 흥겨운 한마당으로 구성됐다.

정상국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은 "이번 음악회가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음악회이자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공연이라 더욱 뜻깊다."며 "한편, 무안국제공항은 잇따른 국제노선 취항으로 5월까지 20여만 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용객이 58.4%나 증가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제주, 무안~타이베이 노선 등 다양한 노선이 증편, 신설 운항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흥군,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08억 원 확보

### 장흥군이 '2019년 여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성 평가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8억 1천 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6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사업성 평가에서 장흥군은 인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여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여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원 창출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여촌경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이다.

장흥군은 거점개발사업으로 인양면 장재도권역이 5년간 총100억 원(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인양면 묵단마을 진입로 정비 4억 6천만 원(국비 3억 2천만 원), 회진면 장산마을 어장진입로 정비 1억원(국비 7천만 원)이 각각 투자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로는 2억 5천만 원(국비 1억 7천 5백만원) 지원을 확정지었다.

# 낙시용품 제조업체 (주)조무사, 진도 어족자원 증대 팔 걷었다

### 감성돔·참돔 치어 4만미 방류...14년째 실시



낙시용품 제조업체인 (주)조무사가 최근 진도군을 방문, 어족자원 증대

를 위해 치어를 방류했다.

(주)이정훈 대표와 회사 관계자 20여명이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진도군을 방문, 청정해역 진도 바다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감성돔과 참돔치어 4만미(1,000만원 상당)를 인양면 해역에 방류했다.

이날 감성돔 치어 3만미와 참돔 치어 1만미를 인양면 남동항에서 방류했으며, (주)조무사는 올해로 치어방류를 14년째 실시하고 있다.

치어방류 행사에는 (주)조무사 이정훈 대표와 진도씨낙시클럽, 진도군청 바다낙시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주)조무사 이정훈 대표는 "낙시로 인해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인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바다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낙시인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